

## 安 逸 만 貪 해 서 야

요즈음 흔히 듣는 口號中의 하나로 “無事安逸을 排擊하자”는 것이 있다. 創意力을 發揮하여 熱心히 일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監査時에나 윗분들로부터의 指摘件數가 增加하기 쉬우니, 차라리 安逸을 貪하여 安住하고 있으면 問題가 發生할 소지가 없어진다고 그릇 判斷한 나머지 公職者들이 無事安逸主義로 빠지려하는 風潮가 한때 이 社會에 蔓延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私心 없이 意慾으로 公務를 遂行하다가 失手하는 경우에는 監査時에도 이를 叱責하지 말아야 한다는 要旨의 大統領 閣下 指示가 있는 以後부터는 監査의 方向도 달라지고 새 氣風이 振作되고 있으니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서 아직도 이 좋지 못한 無事安逸의 風潮가 完全히 가셔진 것은 아니다. 이를 排擊하자는 口號가 尙수 외쳐지는 것이 바로 그 證左가 아닌가.

그런데 異常한 것은 無事安逸에 빠지는 사람들은 大部分 國으로 앉아 있지 않고 남이 意慾으로 일해 보겠다는데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傾向이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社會에서 점차 사라져 버릴 때 우리 社會도 맑아지고 밝아지게 될 것이다.

近來에 우리들에게 警告를 주고 挑戰을 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安逸을 貪하다가는 안 될 것이라는 소리가 드높아 가고 있다.

한가지 例를 들어 보면 —— Fire protection 分野에서는 學問的으로 우리 協會에 敢히 挑戰을 相對가 거의 없다고 할 程度로 우리의 位置는 거의 獨步的이었다. 從前에는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이나 National Fire Codes 등을 所有한 機關은 우리 외에 별로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할 만큼 우리의 權威는 自他가 公認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러나 이제 事情은 一變해 가는 느낌이다. 우리 나라 消防器機 製造業界는 勿論 建設業界等 社會各界에서 NFPA Code 를 云謂할 뿐만 아니라 이의 複寫版까지도 市中에 나돌 程度로 우리 社會가 急 變으로 變遷했는 데도 우리는 平安히 安住하려는 態度를 가지지 않았는가? 겨우 몇 가지 文獻을 읽은 주제에 그 方面의 權威者然하며 排他的이고 驕慢한 態度를 보이며 安逸한 생각을 하거나 않았는지 한 번쯤 自省해 볼 일이다.

周知하다시피 點檢實施機關도 새로 생겨났고 建物主들의 防火施設에 대한 知識도 前과는 달리 그 水準이 아주 向上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自身の 實力은 별로 向上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點에 問題가 있다. 언제 우리가 他機關에 의해 追跡을 當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安逸만 貪하고 있으면 우리의 存亡이 問題가 될 수 밖에 없다. 進取的인 氣象을 가지고, 謙虛한 姿勢로 나아갈 때에만 發展과 繁榮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